

2008 새해설계 ③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여성회장 이계순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계속하고 싶어요”

사회 구석구석 봉사활동으로 성숙된 선진국으로 성장기대

“1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에는 독거노인 4가구를 대상으로 20kg 쌀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봄에는 자연보호캠페인을 깊이유원지, 수원산 등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활동을 벌였습니다. 6월에는 한창 바쁜 포도농가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체험과 더불어 일손 돕기에도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성폭력예방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을 조직해 경찰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청소년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5개조로 편성해 포천지구대에 나가서 밤9시

부터 11시까지 방범순찰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민, 학교 주변 등 시내 한 바퀴 돌면서 방범 활동을 펼쳐 온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전의경자유회에 30만원을 지원했으며 매월 31명의 전의경 생활인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1개월에 2~3회 생활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전의경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살았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포천시 주요행사 때마다 봉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이계순(55·사진) 여성회장이 밝힌 연간 주요활동 내용이다. 이 회장은 1989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처음 여성회를 시작할때는 회원이 15명으로 출발해 어려움이 많

았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동안 바자와와 행사 때마다 기금마련을 위한 판매에 나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새꽃 축제때마다 이를 씩 현장에서 일 할 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트럭을 끌고 나섰다고 한다. 기금조성과 더불어 회원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무나 회원으로 영입할 수 없고 일을 하는 정도 할 수 있는 사람과 회원들의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영입했다. 어렵게 어렵게 현재는 35명의 회원이 5개조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임원진과 5개조 조장 등이 출선수법하여 이끌어 가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 여성회가 지방



자치단체인 포천시에 바라는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과 같은 문서작성에 있어 포천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사회가 이제 봉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한 단계 더욱 성숙되어 선진국이 되는 것 같다”며 서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천성이 밝은 선비의 마음 ‘光風霽月’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원 오찬간담회

2월15일 유림회관 지하 식당에서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원과 유림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하는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서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리효종 회장은 “2008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희망의 사자성이 다름 아닌 光風霽月이라며 이 말처럼 올 한해동안 마음결이 명쾌하고 깨끗한 인품을 가꾸시고 국가적으로는 잘 정돈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배제를 했다.

한편, 光風霽月은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마음결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 깨끗한 인품을 형성한 말로 알려져 있다.

송서(宋書) 주돈이전편에, 북송(北宋)의 시인이자 서가(書家)인 황정경(黃庭堅)이 주돈이를 존경하여 쓴 글이 있다.

“정경칭 기인품심고 흥회쇄략 영광제월 庭堅稱 基人品甚高 胸懷豁略 如光風霽月 정경이 일견기를 그의 인품이 심히 고명

하며 마음결이 시원하고 깨끗함이 마치 맑은 날의 바람과 비연 날의 달과 같도다.”

주돈이는 고인(古人·옛사람)의 풍모(風貌)가 있으며 정사(政事)를 베풀음에는 도리를 다 밝힌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송의 유학자로, 송학(宋學)의 개조(開祖)로 불리며, 태극(太極)을 우주의 본체라 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를 저술하여, 종래의 인생관에

우주관을 통합하고 거기에 일관된 원리를 수립하였으며, 성리학(性理學)으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광풍제월이라는 말은 훌륭한 인품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또 제월광풍(明月光風), 줄여서 광제(光霽)라고도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월15일 유림회관 지하 식당에서 한국한시협회 포천시지부 회원과 유림회관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하는 오찬을 가졌다.

“조합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노동 영북분회 19개 마을에 위문품 전달

농협 노동조합원들이 한·미 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조합원들에 대한 위로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연천포천지부 영북분회(분회장 이재수)는 1월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영북농협의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조합원 배당을 위한 영북면 19개리 마을 영농회에 소주 및 과일을 전달했다.

이재수 영북농협 노동조합장은 “전 직원 40명 중 16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지만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농협에서는 하지 못하는 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하는 등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적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 도움이 된 것이 없다”며 “영

북농협 노조는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생사를 함께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항상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한 위문품은 농협노조 영북분회 노동조합원의 성금으로 19개리 영농회에 주류 19박스, 각 영농회에 소속되어 거주하고 있는 노동조합원의 개별 지원으로 주류 8박스, 과일 4박스 등 총 31박스 등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영북분회는 앞으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등 농업인들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전국농협노동조합 연천포천지부 영북분회는 1월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영북농협의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조합원 배당을 위한 영북면 19개리 마을 영농회에 소주 및 과일을 전달했다.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회 좋은 성적 거둬

영북면 출신 임영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

영북면 출신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가 좋은 대회성적을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란 바렌바르시에서 유럽, 아시아권 29개국 29개팀 25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한 가운데 지난 2월 7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20회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회에 포천시청 선수 2명을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 6명과 함께 참가한 임영선 감독, 김실용 코치는 대회기간 중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 대회에서 포천출신 선수인 포천시청 미들급 김영철선수 동메달, 해비급 정승우 선수가 금메달을 해보고 영북면 김실용 코치는 최우수 코치상, 임영선 감독은 우수 감독상을 함께 수상했다.

당초 8명의 선수가 출전하기로 했으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착오로 인천공항에서 2명이 탑승하지 못하여 6명의 선수만 출전하는 등 우려폭탄을 겪은 뒤에 얻은 결실이다.

태권도대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및 선수단을 대회시마다 그때그때 선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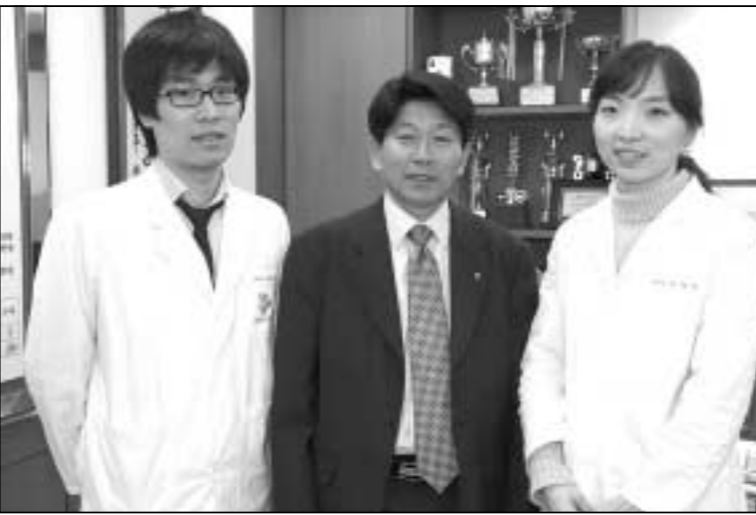
특징이 있다. 임영선 감독은 “영북면 관내 초·중·고교에 태권도부가 창설되어 있고 외지 체육인 및 국민들이 영북면으로 전지훈련을 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태권도를 지역의 효자 종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태권도 대회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가 모두 영북면에서 발탁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잘 된 일이라고 영북면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지난 2월 7일부터 개최된 제20회 이란혁명기념 태권도대회에 포천시청 선수 2명을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 6명과 함께 참가한 임영선 감독, 김실용 코치는 대회기간 중 금메달 2, 은메달 2, 동메달 2개를 따냈다.



경희대 치과대학생 10년째 무료봉사 화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10년 동안 관인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과무로진료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8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지난 2월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신청한 200여명의 치과진료를 무료로 실시했다.

처음 봉사기 시작한 것은 박재경 관인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의 동창생중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와 인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부이야기

설명절을 보내고

우리 조상들은 오곡백과 풍성한 날에 여름내 흘린 땀을 씻고 만찬을 즐기며 추석을 만드셨던 터니 추운 겨울이 끝날 때 쯤 또다시 원기 충전하여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라고 조상님 앞에 모두 모이는 설을 정하셨으니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 든다.

설날 이를 전부터 마음이 분주하다. 신랑과 함께 일을 하는 지라 잠깐씩 틈을 내서 설에 먹을 음식재료 준비를 하고 바로 전날엔 하루 종일 전부치기와 만두 빚기보 손에 물이 마를 사이가 없다.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넘치고 드나드는 아이들의 손에는 전과 한과로 연신 배를 채운다. 혹시나 해할새라 할머니는 식혜를 떠서 손자에게 먹이시며 등을 쓰다듬는다.

오는 사람 푸짐하게 먹일 마음에 합지박 가득한 만두속을 다 빚고서 녹두전과 생선전을 재반에 한가득 부쳐 놓고 나니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합지박에 가득하다.

명절은 아이들의 잔치 날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할머니 덕에 모인 조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씨름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뛰어놀다가 들어와서는 또 부침개를 들고 뛰어다닌다. 명절에 할머니들이 해 주시는 음식은 이상하게도 구수하면서도 경쾌한 것이 아닌 인유 요리사라도 흉내 내지 못하는 연륜의 맛이 느껴지는 것이 특별한나 고기 집에서 외식을 하는 것보다도 더 맛있는 웰빙 식단이 된다. 설날이 있기에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은 이 맛을 자식과 손자들에게 정성으로 보

여주시니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잃었던 입맛을 되찾고 인스턴트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까치의 노래 소리와 함께 설날 아침이 밝았고 큰덕에 모두 모여 제사를 지낸다. 아침상을 물리니 세배꾼들이 몰려오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세배는 어린 조카까지 순서를 기다리고 정겨운 세배꾼이 나오자 어린 조카들은 싱글빙글, 가장 나이 어린 조카의 앙증맞은 세배모습에 모두가 미소를 띠고 있다.

서둘러 고속도로를 타고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가 목이 깊어지신 채 반기신다. 세배를 올리고 외손자의 세배를 받으시니 얼굴에 미소가 퍼지셨고 먼저 도착한 언니 형부 조카들의 얼굴을 보니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생히 살아나면서 술과 함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그렇게 예쁘던 앞집새댁도 세월 속에 늙은 부인이 되어 놀러왔고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한다고 자랑거리였던 앞집 할머니의 큰아들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소용돌이를 타고 내려올걸 보니 인간사 새옹지마라 부러워 질투하던 마음속에 측은지심과 동질감으로 세상을 인주삼아 함께 소주잔잔을 나누기도 했다.

매년 명절이면 타보는 고속도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많은 차량과 인파속에 나도 섞여 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길이 막히지 않는 시간을 찾아 고속도로를 달려본다. 네비게이션이란 것이 비서가 되어 불거리도 제공하고 길 안내도 해주

니 길이 막힌다 해도 그리 지루하지는 않다. 휴게소에 들려 잠시 앉아 있으면서도 한창색의 아름다운 한복과 양장차림이 어울려서 가을단풍을 보는 듯 멋지다. 내내에는 나도 한복을 입고 멋진 모습을 뽐내는 인파속에서 허락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집에 도착하여 보따리를 풀어 보니 환갑이 넘으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반찬이 한자리에 모여 진수성찬이 되었다. 간장에 착한 무말랭이와 깻잎, 무말랭이 나물, 그리고 만두와 떡과 전, 식혜와 수정과 등 한동안은 반찬격정이었다.

여자이기에 며느리이기에 해야 했고 엄마라서 술과 함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본다. 그렇게 예쁘던 앞집새댁도 세월 속에 늙은 부인이 되어 놀러왔고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한다고 자랑거리였던 앞집 할머니의 큰아들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소용돌이를 타고 내려올걸 보니 인간사 새옹지마라 부러워 질투하던 마음속에 측은지심과 동질감으로 세상을 인주삼아 함께 소주잔잔을 나누기도 했다.

매년 명절이면 타보는 고속도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수많은 차량과 인파속에 나도 섞여 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길이 막히지 않는 시간을 찾아 고속도로를 달려본다. 네비게이션이란 것이 비서가 되어 불거리도 제공하고 길 안내도 해주

못하는 정령과 열정이 뛰어나며 목표 의식이 탁월하다. 항상 부지런한 생활방식이 오늘의 포도가 포도농원의 대상을 습득하지 않았나 하는 격려와 사랑함을 보내고 있다. 2008년 유망2리 작목반 총무, 포천연합회 작목반 총무(농업 경영대학원), 가산초등학교 38회 연인 회장직을 맡고 봉사활동에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박서영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본능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 본성 ‘의식적(意識的)발로’

한다. 본성은 이처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는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본성은 ‘의식적(意識的) 발로’이다. 그래서 양심(良心)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양심은 본성의 ‘덧붙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본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본능은 ‘나’ 지향주의(指向主義)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追求)한다. 본능이 발동하면 의(義)는 생각지 않는다. 당위성도 생각지 않는다. 실적(實績) 위주이고 능력(能力) 위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본성이다. 이성(理性)이다. 이성은 ‘홍익(弘益) 지향주의’이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모두가 잘 살자는 주의이다. 본성은 의(義)를 생각한다. 이(利)를 보면 의(義)를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이(利)를 보면 의(義)를 생각하라.” 본성(本性)은 이성(理性)이기 때문이다. 철학 용어에 ‘구성주의(constructionism)’와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란 말이 있다. 구성주의나 해체주의나 모두 이성을 생각한다.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이다. 구성주의는 외향적

(外向的)이다. 이성으로 세상을 구원(救済)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해체주의는 내향적(內向的)이다. 해체주의는 이성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의 이치(理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다시 경제실용주의(經濟實用主義)와 도덕명분주의(道德名分主義)로 나뉜다. 경제실용주의란 인간의 이기적(利己的) 본능을 합리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도덕명분주의란 도덕의 확립을 통해 세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실용주의가 본능(本能)을 따르는 것이라면 도덕명분주의는 본성(本性)을 따르는 것이다. 도덕명분주의는 본능을 억압하려 한다. 반면 해체주의는 본성을 내세운다. 본성중심으로 사유(思惟)하기 때문이다. 본능의 이익(排他的)인 것이라면 본성의 이익은 스스로를 분비(分泌)함으로써 기쁨을 나누는 이타적(利他的)인 것이다.

이를 불가에서 말하는 업(業)으로 풀면 부정적인 업장(業障)과 긍정적인 직업(職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직업을 통해 자신의 개선과 능력을 표출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뤄질 때 세상에 대한 보시(布施)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보수(保守)와 진보(進歩)의 다툼이란 것도 결국 경제실용주의와 도덕명분주의의 다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균형(均衡)과 조화(調和)라는 ‘짓대’를 놓고 보면 본능과 본성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공존(共存)해야 하는 것이다. 본성만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본성만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물론 ‘내가 우선이다. 세상(世上)은 ‘내가 있음으로서 의미(意味)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울릴 때 빛나는 것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일 때 빛나는 것이다. 이(利)가 없으면 사(私)가 없는데 나만 홀로 독자청청(獨也靑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규임 한국경제학회 회장

우리신랑 최고

보냈지만 어느 날 꿈을 포기하고 지내다가 10여년을 눈감적회사에 보내고 2006년 부모님과 함께 포도나무 농업에 합세하여 자라나 포도나무를 찾는 정성을 다해 가꾸었다.

새벽 4~5시쯤 일어나 물주고 가지치고 알숙음을 하고 거름주고 아침·점심·저녁 밥만 없는 사랑 정성을 기울이며 늦은 밤까지 책과 시를 읽고 늘 포도나무 사랑에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연구한 결과 대한민국 대상을 신청했다. 대단한 나의 신랑 한빈이라고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따라오지



박서영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